

科学的对備로 災害防止

理事長 李 養 浩



災害를 天災와 人災로 区分하면 火災는 人災의 가장 큰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近代工業國으로, 發展함에 따라 都市의 巨大化와 生活圈의 集中化로 建物의 大形化 傾向과 가스 및 油類使用의 增加趨勢로 火災予防에도 갈수록 緻密한 科学的 对備가 要請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3次年度에 該當되며 또한 70年代의 마지막 해로서 80代로 접어드는 重要한 해 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協會가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第16條 義務條項에 따라 安全占檢業務를 實施해온지 於焉 5個星霜이 지났습니다

現代는 創造의 多樣性이 豊富한 發想力 思考力 判斷力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이는 安全占檢分野에도 例外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安全管理의 理想은 災害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는 積極的인 立場에 있기 때문입니다 火災는 一旦 發生하면 甚大한 被害를 입게 마련이고 그 慘酷狀은 이루말할 수 없을 程度로 苦酷할 뿐 아니라 未燒된 物質이 있다해도 再生 活用 또는 다른 用途에 轉用도 不可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火災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徹底하고도 完璧하게 保護하기 위하여는 鎮壓消防에 앞서서 予防消防 就中 安全占檢에 重占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1世紀 中葉 發生했던 로마의 大火는 그렇게도 雄大하고 華麗했던 로마의 거리를 삼켜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歷史의 教訓이란 過去에 關한 歷史的 知識을 배우는 것 만이 아니라 그 知識을 教訓삼아 智慧롭고 効果的으로 行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過去에 처하여 생각할 때에는 現在에 처한 것과 同等한 銳敏한 關心을 갖고 現世에 처하여 생각할 때에도 過去에 처한 것과 同等한 冷靜한 反省을 잃지 않는 것이 必要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災害를 當하고 보면 비로서 平常時의 손질과 占檢이 不充分 했다고 後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變貌하는 世代에 따라 우리 安全占檢誌의 防災分野에 처한 使命 더욱 重且大 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玉稿를 보내주신 諸位에게 衷心으로 感謝드리며 本誌에 의하여 安全占檢의 概念을 得하고 災害 未然防止에 一翼이 되어준다면 이 以上の 기쁨이 없겠습니다